

모세의 인간극장

1 찬양과 기도

- 찬송 : 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 살인자가 된 모세

11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12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13 다음 날 모세가 나가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14 그 잘못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탄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 미디안에서 살게 된 모세

15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16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 일곱이 있는데 물을 길으러 와서는 구유에다 그 아버지의 양 떼에게 줄 물을 채웠습니다. 17 그런데 몇몇 양치기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일어나 딸들을 도와주었고 그 양들에게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 18 그 딸들은 자기 아버지 르우엘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19 딸들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양치기들에게서 구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 물도 길어 주고 양들에게도 물을 먹여 주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20 아버지는 "그가 어디 있느냐? 왜 그를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음식을 대접하자"라고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21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르우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22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3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2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2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3 묵상하기

모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행 7:22-23), 자기 동족이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든 누군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11-12절, 17절). 모세의 그 신념과 열정은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됩니다. 결국 혈기왕성했던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에서 숨죽여 지내는 처지가 되고서야 겸손하고 깊은 사람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대 상자에 버려진 아기에서 왕족으로, 왕족에서 쫓기는 신세로 반전이 거듭되는 모세의 인생극장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인내하며 한 사람을 그분의 자녀답게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 열정으로 오늘 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까지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4 적용하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극장을 써 내려가셨듯 나의 인생극장도 써 나가고 계십니다. 환희의 순간도 고통의 순간도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순간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갈 2:20) 과정이자 훈련의 시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 감정과 열정을 끝내 못 꺾어서 이 시간을 오래 견디 않도록 모든 순간에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5 생각하고 나누어보기 (각자의 삶을 서로 나눠 봅니다)

- ①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보다 앞선 열정과 판단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일은 없나요? 그 일에서 지금이라도 바로잡고 다듬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 ②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던 일이 있나요? 그 일을 통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6 기도하기

- ①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② 저의 열정이 하나님의 뜻과 방법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③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1 큐티하기 전 기도

- 찬송 : 새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 기도 :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2 성경본문 (우리말성경) 본문을 세 번 천천히 읽어 볼까요?

- 21 그리하여 모세는 흔쾌히 르우엘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르우엘은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 22 십보라는 모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아들의 이름을 게르숨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이 됐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 23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중노동으로 인해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습니다.
- 24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 2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 궁굼 사전

- * 흔쾌히: 기쁜 마음으로
- * 중노동: 몸과 마음의 힘이 많이 드는 노동
- * 신음: 고통이나 괴로움으로 고생하며 내는 소리
- * 언약: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맺어 주신 은혜로운 약속

• 말씀 씨앗

어른이 된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였고 그 사실이 드러나자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곳에서 십보라와 결혼을 했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로 힘든 노동을 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3 말씀 새씩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아래 빈칸을 채워 보세요. (24~25절)

하나님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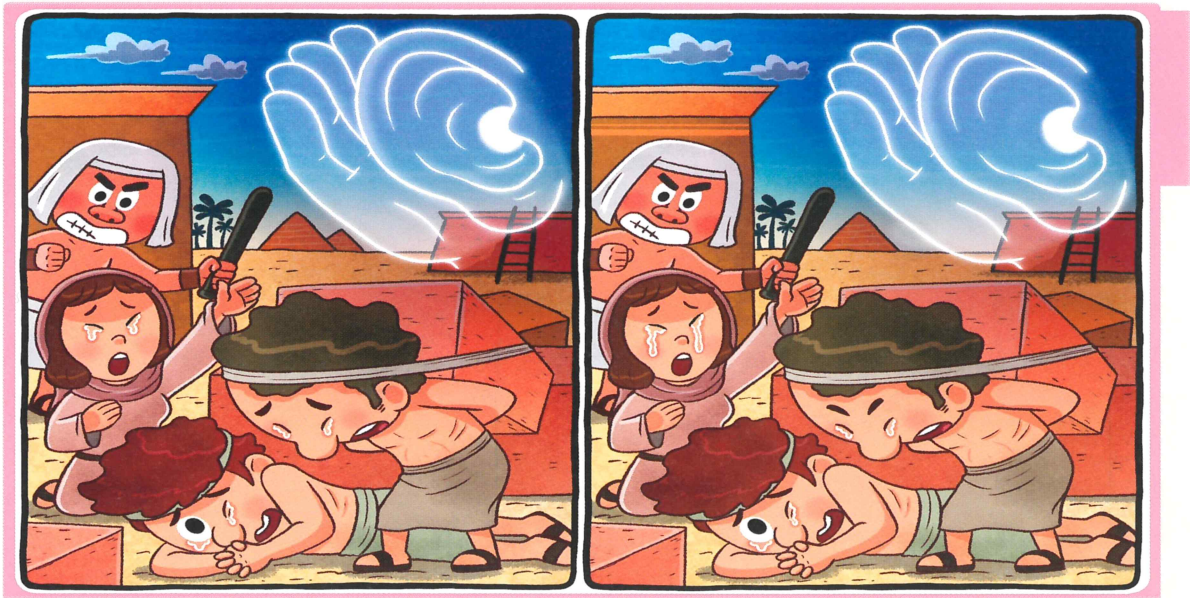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5 말씀 열매

그림을 보며 힘들고 괴로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나도 힘들고 슬플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하세요.



* 서로 다른 곳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 이것만은 꼭 기억해요

하나님은 괴로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6 기도하기

하나님, 제가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을 찾을 때 저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